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계획서

성북, 문화다양성으로 동행同幸하다

2018년 9월

성 북 문 화 재 단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1차 변경계획서

기관명	성북문화재단
사업명	성북, 문화다양성으로 동행同幸하다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인지적 경계를 갖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세계 또는 국가를 조감하는 전체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문화다양성을 위한 핵심적 요소임을 인식 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독창성은 장소의 매력, 사회적 자긍심, 타 지역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시민들의 공속감을 증대시켜 사회문화적 풍요로움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있던 것, 하던 것을 드러내는 문화다양성 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 다른 것과 만나 융합적으로 표현되는 문화다양성의 토대는 나와 우리의 문화적 토대를 찬란하게 하는 것에서 비롯됨
 -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 영역 안에 존재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발견하고 일상의 가치로서 일상적 만남을 매개하는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새롭게 드러내, 문화다양성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광활한 지역성(Vast locality)’ 그 자체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전략 필요

2. 소수문화, 하위문화를 미래 주류 문화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주요한 문화적 장에 참신하게 등장시켜 끌어올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함
 - 문화다양성을 이야기 하면서 흔히 노인과 청(소)년 등 세대 문화, 이주에서 비롯된 다문화, 장애인 문화, 성소수자 등 차별 받는 계층의 문화를 다루는 것에 있어 멀리 떨어진 협소한 것이 아닌 다양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전략적 표현방식, 관계 맺기가 중요함
 - 재밌는 것, 관심이 가는 것, 공감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하고 스며들어,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전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3. 문화다양성이 하나의 문화적 장르나 분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원리로 작용하는 최상위 개념임을 전제로, 본 사업 뿐 아니라 지역에 걸쳐 있는 모든 문화사업의 기본개념으로 작동시킬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을 개별 문화정책 또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지역문화, 생활문화, 장르별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등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게 되는 우를 범할 여지가 많음
 - 사업의 실행은 장르나 분과적 프로그램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으나, 이면의 작동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게 만드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기획하고 설계하며 그 반응을 이끌어내고 변화를 만드는 교육적 확산에 방점을 두어야 함

II. 사업목표

1. 최대한 많은 문화다양성 지역 주체들이 참여 하는 것, 이를 조직하는 것, 활성화 하는 것으로 힘 있는 운동성을 만들
 - 새로운 세대와 시민 참여 : 지역 내 대학 수업 및 청년활동을 통해 대학생과 청년들이 기존의 문화다양성 주체 및 네트워크와 교류하며 새롭게 조직되고 이를 활성화 하는 사업을 진행함. 성북에는 7개의 종합대학이 있고 129,000여 명의 청년들과(전체인구 대비 30%) 12,000여 명의 외국인(전체인구 대비 2.6%)들이 있음
 -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강화 : 지역 이주민, 유학생들의 활동과 참여를 늘리고 소수문화의 주체들을 포함한 정기적 테이블을 촘촘히 만드는 것으로 성북문화재단 및 문화 거버넌스 기 조직들과의 구체적 협력 프로그램을 늘려나감
 - 성북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진행
2. 성북의 문화들을 새롭게 참신하게 드러내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함
 -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의 지속적 확대, 출판 및 영상 콘텐츠 확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로컬리티 그룹의 문화 생산 활동 등이 거점 공간, 일상 공간으로 확대하고 온-오프 미디어 유통을 증가시킴. 지역의 전통과 역사문화 스토리를 청(소)년 층과 시민에게 확산하는 문인사전과 잊혀져가는 전통문화 웹툰 사업의 지속
 - 커뮤니티, 인물, 프로젝트 별 현장을 취재하고 기록. 문화다양성 스토리와 사례를 발굴해 소개. 정부의 사회정책, 예술정책, 문화정책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바라본 한국과 지역사회, 디아스포라의 일상을 스케치하고 가깝게 들여다보는 문화 스토리텔링 작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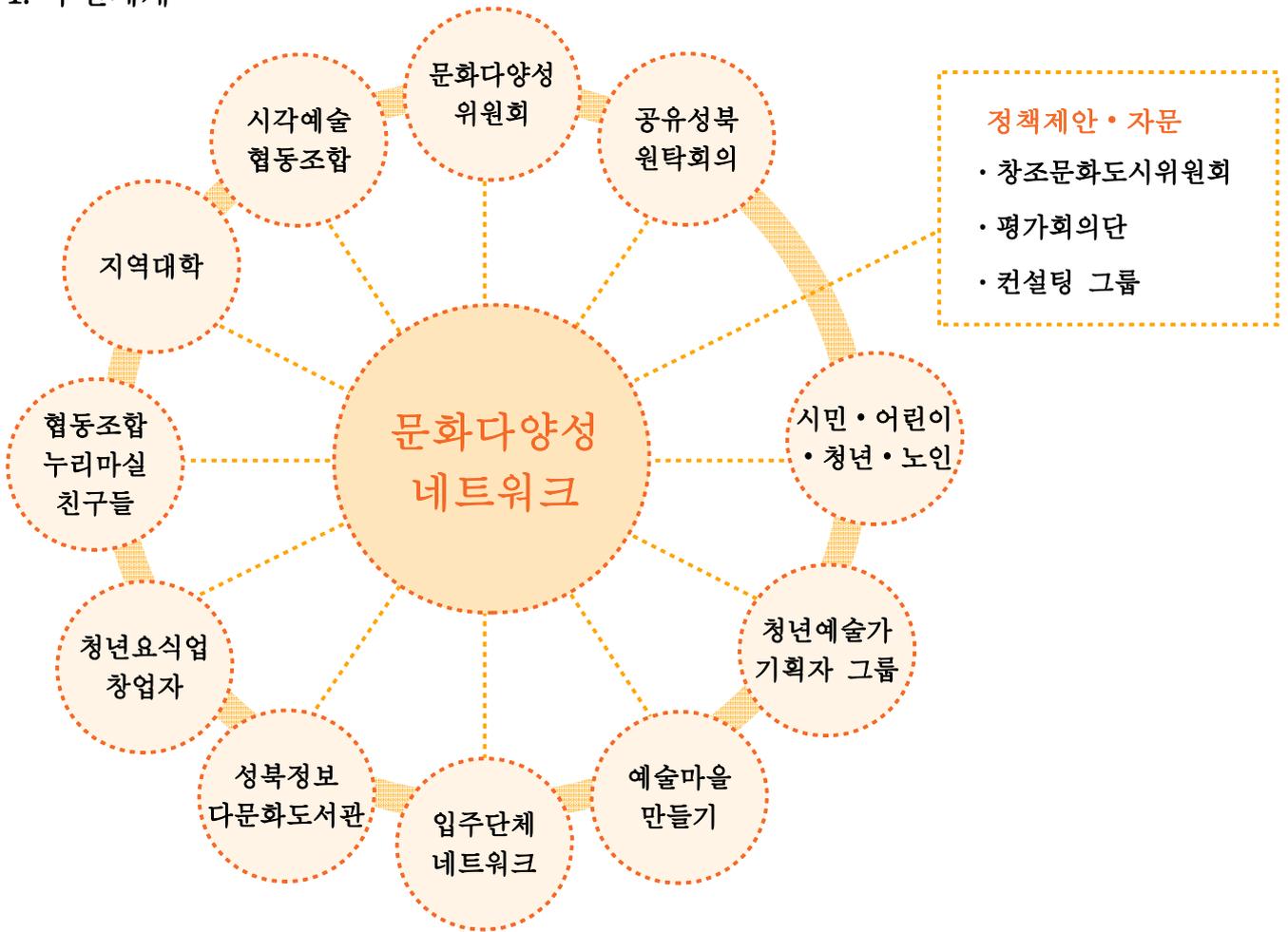
3. 다른 문화권과 지역의 영화, 문학, 생활, 시각예술, 공연 등을 문화공동체 운동, 주민의 생활문화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단기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닌 일상 요소로 만드는 것
 - 오래된 지역의 봉제와 패턴 디자인 산업,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만들어 내는 매력적인 문화 요소인 스트리트 패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드러내는 것
 - 다문화 이주민 정책은 타 부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음. 문체부의 문화다양성 공모 사업에서는 중복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북에서는 핵심 내용으로는 다루지 않아 왔음. 6년차 사업에 있어 지역의 중요한 상호문화 주체들로 새롭게 등장시키며, 그동안 쌓아왔던 문화다양성 사업의 결실로서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일대의 다문화 커뮤니티를 대폭 확대시키고 활성화하는 다양한 음식문화를 일상에서 풀어내는 것

III. 기대효과

1. 우리 지역 자체, 나 자신을 문화다양성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우리가 문화다양성의 한 부분임을 인식함
 - 성북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시작임을 발견, 성북 고유의 문화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 확산
 - 어디에나 존재하는 전통문화와 지역성, 장소성을 드러내는 개성이 결국 보편성을 증대 시키는 것임을 인지
2. 더 많은 참여로 만들어 내는 문화적 다양함의 교육적 효과와 인식확산
 - 예술가, 기획자, 연구자 등 기존 직업적 관여자가 아닌 대학생, 일반시민, 어린이, 주부로서 ‘내’가 등장 하는 의식
 - 소수자,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남성, 이주민, 선주민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상호적 표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문화 이해
 - 소수문화, 하위문화, 전통문화, 계층과 세대의 문화에 대한 존중
3. 성북구 정책과제와의 연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가치 확대
 - ‘마을민주주의’구현의 중요한 원리로써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
 -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幸 공동체’ 구축의 핵심으로써 문화다양성 가치가 강조되는 것

IV. 사업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및 각 주체별 역할

성북문화재단

- 사업의 총괄 기획 및 사회적 미션 도출
- 일상문화예술 공간 제공, 시민참여 도출, 거버넌스 구축 환경 제공
- 서울시, 성북구청, 주민커뮤니티, 지역대학, 초중고교, 복지관, 문화원, 연극협회, 직업체험센터, 평생학습센터, 청소년기관, 지역 내 협동조합, 관련 네트워크 등 지역 커뮤니티 및 기관 연계
- 독서회, 동아리 등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 문화커뮤니티와 연계
- 지역정책 수립 및 연계지점 도출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 지역의 문화다양성 주체들이 만나 협치와 상생을 통해 지역과 미래를 이야기 함

문화다양성 위원회

- 정책과 의제 단위의 성북 문화다양성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지역대학

- 학교 밖, 지역문화 자원 발굴
- 주민 주체 발굴 및 아카이빙

청년 요식업 창업자

- ‘식食’을 중심으로 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진행

입주단체 네트워크

- ‘공간’을 매개로한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

청년예술가·기획자 그룹

- 전통문화 명인 발굴 및 스토리텔링, 웹툰 제작

공유성북원탁회의

- 지역 주민-예술가 거버넌스, 자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

시각예술 협동조합

-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미술로 풀어내고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 공생 모색

협동조합 누리마실친구들

- 지역의 문화다양성 주체들이 만나 문화다양성생태계 조성

성북정도다문화도서관

- 23개국 언어로 된 도서 제공
-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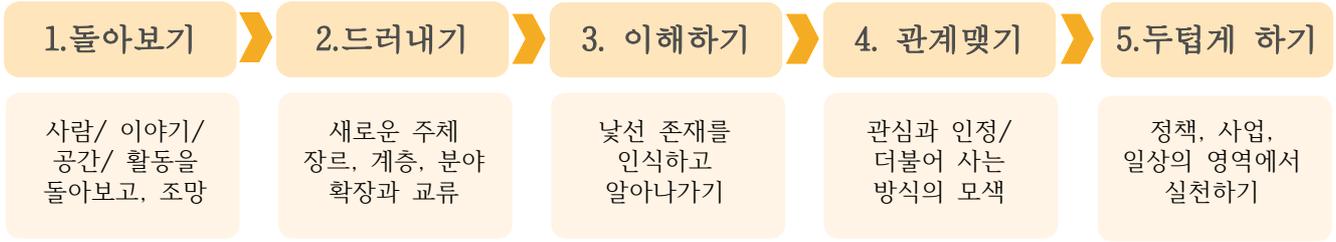
예술마을만들기

- 이주민 커뮤니티 주체들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시민·어린이·청년·노인

- 지역문화의 주체로서 정체성 확립
- 세대를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2. 추진 방법



가. 문화다양성 주제와 활동, 공간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조망

- 1) 지난 5년간 발굴된 문화다양성 주제들을 정리하고 조망하여 현재 그들의 모습을 돌아봄
- 2) 변화된 성북구의 대학생, 문화예술인, 연구자, 기획자, 이주민, 활동가 등 주제 발굴 확대
- 3) 문화다양성 사무국 설치, 다문화도서관 운영, 지역 내 각종 거점 공간 활용

나. 지역 문화다양성 주제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 1) 공유성북원탁회의, 도서관동행원탁과 같은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조직화 및 활성화 추진
- 2) 워크숍, 포럼, 주민회의, 동아리 네트워크 등 공론의 장 마련
- 3) 동별 문화다양성 신규 주제들과 함께하는 공동 포럼 및 네트워크 파티 기획

다. 지역문화와 문화다양성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하는 계기 마련

- 1) 세대간 커뮤니티 활성화 차이와 공존 등 관용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기획
- 2) 지역 내 존재하는 소수문화, 로컬리티 그룹들을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3) 참여자가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민간주체로 활성화

라. 상호문화이해 프로그램과 문화다양성을 인지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다양한 방식 존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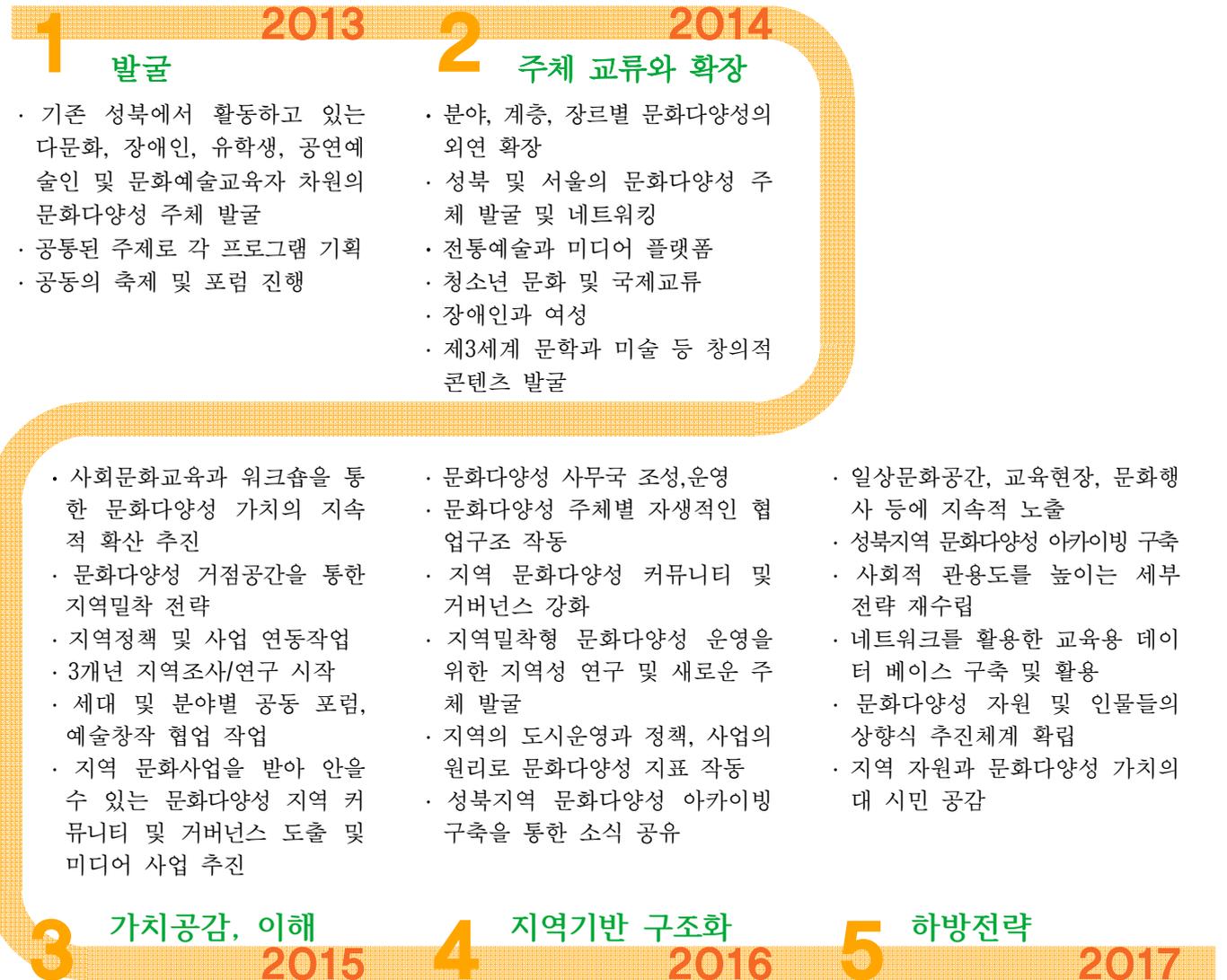
- 1) 장르별 문화다양성 전문가들 및 예술가-지역의 문화다양성 주민 공동작업

마. 정책, 프로그램, 일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역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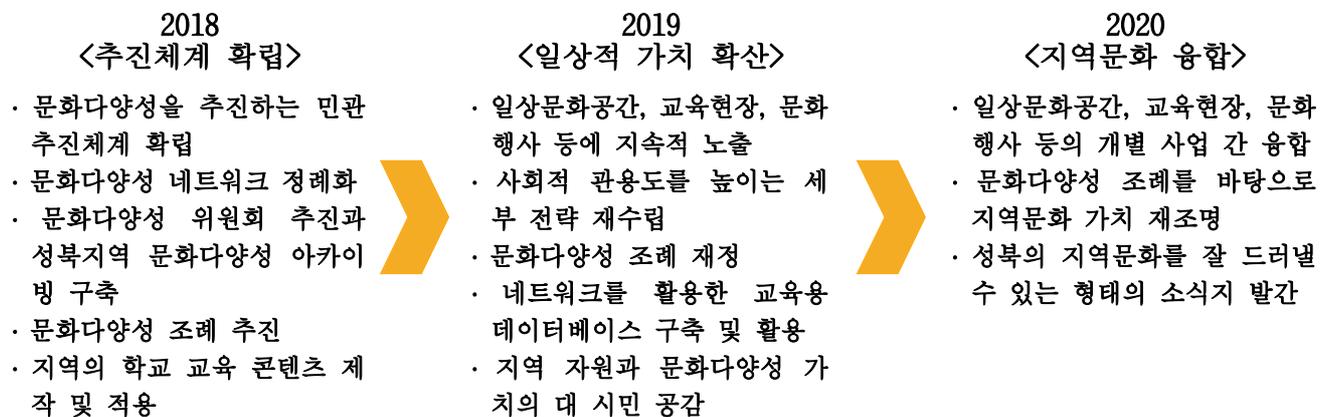
- 1) 이주민과 소수인, 선주민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등 세대별로 분리 되어 있는 문화를 만나게 하여, 그 간극을 해소
- 2)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일상 문화 공간 조성
- 3) 지역 정책 및 사업과 연동, 견인의 계기 마련

V. 중장기 사업계획 (2018년~2020년 사업개요)

1. 초기사업방향(2013 ~ 2017)



2. 중장기사업방향(2018 ~ 2020)



VI. 2018년 무지개다리 사업 세부계획안

1. 성북의 대표 문인사전 및 지역 콘텐츠 활성화

가. 지역 거점기관 단체들과 결합한 문인 기반 인문학 활성화

나. 성북의 대표 문인들의 일대기를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시켜 기획전 개최

- 1) <소설가 박완서> 문화다양성 특별 강의 및 기획전
- 2) 지역의 동시대 인물 콘텐츠 아카이빙 인적네트워크 구축

2. <잊혀져가는 문화다양성 4탄> _ 전통문화 길상사 웹툰 제작 사업

가. 사라져가는 문화와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웹툰을 제작. 성북의 대표적인 콘텐츠로써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게 함

- 1) 지역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역사적 명인들의 스토리를 포털사이트 웹툰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과 공유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새롭게 어필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개발
- 2) 성북의 길상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김영한(개원 및 기부), 백석 시인, 법정 스님의 스토리를 제작함
- 3) 제작일정
① 선정: 3~4월 / ② 스토리텔링: 5~7월 / ③ 만화제작: 8~11월 / ④ 배포: 12월

3.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의 배후 기지로서의 지역산업문화 조망

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밀려나고 있는 패션 제조업의 메카 석관동, 장위동 그리고 보문동 지역에서 한 번도 조명되지 않았던 ‘스트리트 패션’의 산업문화를 아카이빙, 지역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지역의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이를 수행하는 <K스트리트 패션 장위동, 보문동> 프로젝트를 진행함

- 1) 지난 10년간 한국 스트리트 패션의 발자취를 성북구 대학의 미술학과, 패션학과 협업을 통해 아카이빙
- 2) 석관동, 장위동(봉제) 그리고 보문동(패턴)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패션산업 구조와 그 흐름이 하이패션에까지 수용되는 문화현상을 재조명
- 3) 성북의 청년들에게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 생활에 기본적 요소이자 자기표현 방식인 ‘옷’을 통해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

4. 문화다양성을 위한 월곡 마켓

가. 월곡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다양성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모여 그 활동을 통해 활성화되고 확장되며, 동네 축제를 음식에서 공예, 예술 물품 공유로 넓힘. 정기적인 문화다양성 마켓 운영으로 상호문화 이해와 확산 및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의 사례를 만들

- 1) 이주민·선주민의 소통창구로서 거점 공간 확보 (다문화 마켓)
- 2) 다문화 커뮤니티 구성원의 나라별 전통음식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운영을 모색하며 지역 문화콘텐츠로 개발
- 3) 민관 협력, 주민 커뮤니티 등 지역자원과, 동 축제 연계를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4) 협력단체 : 5개 단체 약 60명
 - ① 성북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 ② 석관동 지역문화 커뮤니티 [석관드림]
 - ③ 동덕여자대학교 공공예술연계전공 사고몽치협동조합
 - ④ 다문화 민간커뮤니티 다가치부모/ 다가치청년
 - ⑤ 돌곶이 다문화학교(한국어 배움교실)

5. 성북 도큐멘타5: 공동의 기억

가. 성북 지역의 공간 중, 한 시대를 주민들과 함께 했으나 현재는 사용용도를 다했거나, 곧 사라질 공간에 대한 아카이브와 시각화를 통해 공동의 기억을 재생하여 공동체성을 강화

- 1) 공간이 만들어낸 주민의 삶과 그 기억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생산 및 공유
- 2) 성북의 유희 공간 발견과 기록에 그치지 않고, 도시재생으로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마련
- 3) 지역 예술가 및 동네 건축가 집단과 연계
- 4) 리서치 워크숍 인접 대학교와 연계하여 진행(국민대, 한성대, 한예종, 성균건축도시 설계원 등)

VII. 2017년 무지개다리 사업 실적 (해당기관에 한 함.)

1. 찾아가는 어린이 미술관

가. 참 여 자 : 806명

나. 특 성 : 교육

다. 진행내용

- 1) 1회차 : 자유로운 발상에 대한 학습과 감상
- 2) 2회차 : 다양한 표현기법과 드로잉, 조형
- 3) 3회차 :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례 및 연관된 작품 감상
- 4) 4회차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스토리로 액션페인팅(단체). 소감 발표와 전시
- 5) 총 16회 진행, 8세 ~ 11세 대상

라. 도출성과

- 1) 다수의 주민들이 오가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미술을 매개로 어린이들에게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주입식, 텍스트 위주 혹은 일방적 교육이 아닌 표현과 공동 작업을 통해 친근하게 이해를 도모함
- 2) 이를 확대 개발하여 청소년, 성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기획 중

2. 미아리 맹인독경 창작 낭독공연

가. 참 여 자 : 193명

나. 특 성 : 소수자/다수자 교류 프로그램

다. 협력단체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우리동네아플리에, 미아리고개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 고개엔마을협동조합, 마을담은극장 협동조합

라. 진행내용

- 1) 지역의 예술단체와 주민주체 그리고 성북문화재단과 연계를 통해 민관협력 구조를 마련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함
- 2) 맹인낭독에 대한 역사와 현재의 무형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극을 만들어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연을 펼침
- 3) 시놉시스 : 미아리고개 짙레꽃 철학관, 앞 못 보는 여인 신청이가 이곳에서 사람들의 운명을 봐주며 살아간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청개구리가 찾아와 청이의 생일을 축하한다. 청개구리는 청이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며 몹

시 미안해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며 청이는 눈을 잃어버린 그날 일을 떠올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떠돌다 미아리고개까지와서 살게 된 사연 ‘심청전’과 같은 듯 다르게 펼쳐지는 맹인 신청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 도출성과

- 1) ‘서울 맹인 안택경’ 서울시 무형문화재 등재와 더불어 미아리고개의 역사·문화적 자원인 맹인독경을 소재로 한 공연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콘텐츠 마련
- 2) 외면 받고 쇠퇴해가는 맹인-점복-무형문화를 아카이빙하고 새로운 창작으로 지역주민에게 선보여 이 장소와 맹인점복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제외되지 않고 의미 있는 동반자로 살아가는 계기를 만들어냄

3. 성북예술동 ‘이웃집 예술가’

가. 참여자 : 1,031명

나. 특성 : 소수자/다수자 교류 프로그램

다. 협력단체 : 삼선동369마을, 한성대학교 회화과, 시각예술협동조합 아트플러그, 마로다연, 성북동-삼선동 공방 및 카페 16곳 이상

라. 진행내용

- 1) 성북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문화로 아트씬을 가시화하고 예술의 장을 마련하는 목적
- 2) 성북동, 삼선동의 공방들을 연결하는 <공방人in성북>
- 3) 한성대학교 학생들과 지역을 탐방하고 전시하는 <포스트 스튜디오>
- 4) 오래된 지역의 음식점이 철거되고 난 공터에서 그 흔적과 주변 환경을 주제로 하는 <공의조경>
- 5) 여성이나 예술동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결합된<투어 퍼포먼스>
- 6) <성북 아트씬 포럼>을 연계하여 성북-삼선동 지역성과 예술, 공공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진행함

마. 도출성과

- 1) 성북-삼선동에는 수많은 갤러리와 시각예술 작업자,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이를 드러내고 바라보는 것 자체로 지역-문화다양성의 독특함을 표현함
- 2) 이를 발전시켜 성북의 아트씬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 가시화하고 대내외적으로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소개하는 기회가 됨

4. 잊혀져가는 문화다양성 웹툰제작

가. 참 여 자 : 30만 명(예정)

나. 특 성 : 콘텐츠 제작·보급/영상기록·아카이빙/팟캐스트 등

다. 협력단체 : 간송미술관, 간송미술재단, 다음커뮤니케이션(예정)

라. 진행내용

- 1) 간송 전형필에 관한 이야기를 광복 이전까지의 큰3가지 사건(천학매병, 개스비 컬렉션, 훈민정음 헤레본)을 바탕으로 스토리 개발
- 2) 지역의 스토리를 웹툰으로 제작 후 포털사이트 웹툰 플랫폼과 협력하여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전국적 배포. 지역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해 젊은 세대(10~20대)를 중심으로 일반대중의 관심유발에 중점을 둠

마. 도출성과

- 1) 성북 지역을 바탕으로 간송 전형필 선생의 스토리를 발굴, 개발하여 아동청소년들,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 지역문화, 전통문화, 세대 간 격차 문제 등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함

5. 성북의 문인 기반 인문학 활성화

가. 참 여 자 : 542명

나. 특 성 : 콘텐츠 제작·보급/영상기록·아카이빙/팟캐스트 등

다. 협력단체 : 아트플러그

라. 진행내용

- 1) 신경림, 조지훈에 이은 문인사기획전으로 평론가 황현산 선생을 지역문화-인문문화 관점의 문화다양성으로 해석하고 전시함
- 2) 인터뷰 영상, 저작물, 강좌 영상 등 아카이브 자료를 비롯 황현산의 글을 재해석하여 제작한 시각 예술작가들의 설치, 영상, 평면 작업 등을 함께 전시
- 3) 다양한 전시로 황현산의 문학 세계를 풍성하게 보여주었고, 전시기간 중 황현산과 젊은 문인들이 한국 시의 오늘과 미래를 논하는 좌담회 진행

마. 도출성과

- 1) 황현산 선생의 풍부한 저술과 자료, 사상에 관한 본질적 해석들이 담긴 예술작품들을 선보여 이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6. 성북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기록집 제작

가. 참 여 자 : 2,000명

나. 특 성 : 콘텐츠 제작·보급/영상기록·아카이빙/팟캐스트 등

다. 진행내용

- 1) 성북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에 대한 재조명 및 아카이빙으로 지역문화콘텐츠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북의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함
- 2) 성북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을 다른 콘텐츠를 발굴하고 묶어냄. 기 추진했던 성북의 문화다양성 사업 결과물을 정리함

마. 도출성과

- 1) 기존에 진행했던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 및 정리를 통해 향후 성북의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확장된 개념의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함

7. 유럽단편영화제

가. 참 여 자 : 4,065명

나. 특 성 : 캠페인/홍보활동/축제 등

다. 협력단체 : 꿈길제작소, 이유엠앤씨, 고려대학교 KU시네마트랩, 서경대학교,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성북, EU센터, 오렌지 필름, 성북 독서회

라. 진행내용

- 1)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로 유럽 29개국 34개 지방 단편영화 41편 상영 및 개막식 등 문화행사 진행, 다양한 지역 민간주체와 협력하여 상영프로그램 등 운영
- 2) 영화제에서 상영된 유럽단편영화 콘텐츠를 선별하여 학교, 공공기관, 독서회, 주민커뮤니티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 추진

마. 도출성과

- 1) 역사문화자원과 글로벌 문화자원이 공존하는 성북에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단편영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해 문화다양성 증진과 확산에 기여함

VIII.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계획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2018년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개요(안)>

- 문화다양성의 날 : 2018년 5월 21일(일)
- 문화다양성 주간 : 2018년 5월 21일(일)~5월 27일(토)

1. 개요

가. 문화다양성을 위한 월곡 마켓

- 1) 일 시 : 2018. 05. 26.(토) or 27.(일)
- 2) 장 소 : 달빛공방 (성북구 월곡동 소재)
- 3) 참여대상 : 지역주민
- 4) 협력단체 : 5개 단체 약 60명
 - ① 성북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 ② 석관동 지역문화 커뮤니티 [석관드림]
 - ③ 동덕여자대학교 공공예술연계전공 사고몽치협동조합
 - ④ 다문화 민간커뮤니티 다가치부모/ 다가치청년
 - ⑤ 돌곶이 다문화학교(한국어 배움 교실)
- 6) 내 용 : 월곡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문화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모여 음식축제와 공예, 생활예술 물품을 공유하는 문화다양성 마켓 운영

나. 취지 및 기대효과

- 1) 이주민 커뮤니티의 안정적 조직화를 통해 사업운영에서의 주체적 참여 유도
- 2) 민관 협력, 주민 커뮤니티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3) 이주민·선주민이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및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

성북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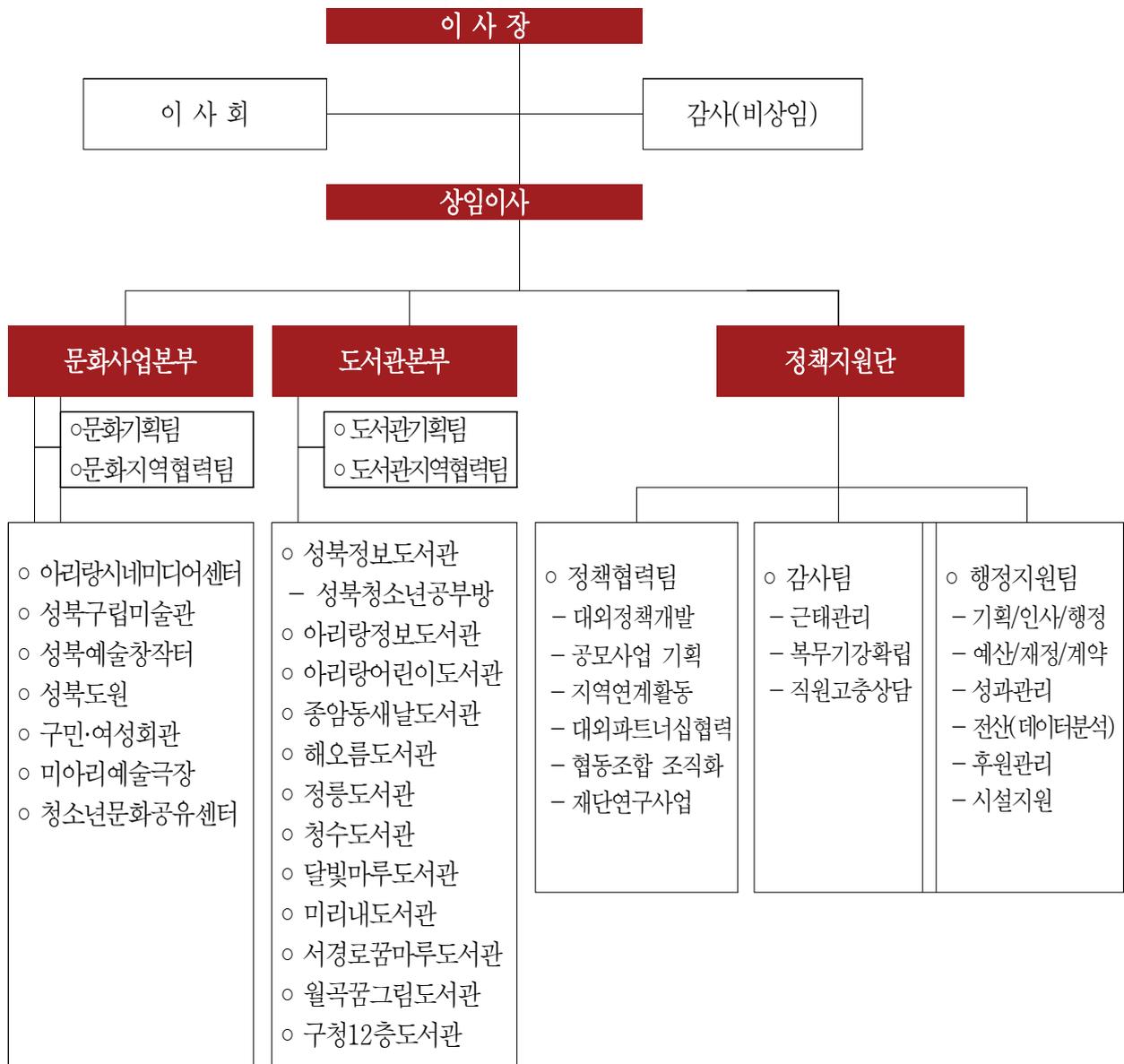
1. 설립목적

- 성북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
- 구민들의 구민복지 향상 지향

2. 일반현황

- 설립연도 : 2012년
- 홈페이지 : www.sbculture.or.kr

○ 조직도



3. 기관의 주요 활동영역			
<p>도서관 : 성북정보도서관 등 11개 지역도서관 운영, 다문화 도서관 프로그램, 청소년직업체험</p> <p>성북구립미술관/창작터 : 소장품 전시, 지역 예술가 전시 등 전시사업과 미술아카데미 사업</p> <p>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 청소년 교육, 마을미디어, 마을극장, 독립영화/상업영화 상영</p> <p>문화예술기획(문화사업본부) : 성북진경 축제,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마을공동체, 전통시장, 문화다양성 커뮤니티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축제 사업</p> <p>그 외 문화 공간 운영 : 구민여성회관,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등 생활예술 프로그램</p> <p>문화예술교육사업 : 문예체멘토링, 역사문화교육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p> <p>문화/도서관지역협력팀 : 지역의 예술마을만들기 사업</p>			
4. 주요 사업 관련 실적			
연도	사업명 및 주요내용	*해당사항에 체크	
		주관기관	컨소시엄
2013, 2015, 2016	성북 다문화 음식축제	✓	
2013, 2014	다문화 도서관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2013 ~ 2017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	
2013, 2014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	
2014	제8회 이주민영화제 및 여성인권영화제 개최	✓	
2015 ~ 2017	문화다양성 축제<누리마실>, 유럽단편영화제	✓	
2017	잊혀져가는 문화다양성 사업	✓	
5. 기관의 특징 및 장점			
<p>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 전역에 걸쳐 도서관, 예술창작터, 영화관, 미술관 등 24개 시설을 운영하며 주민 문화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예술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으로 문화기반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고 있음.</p> <p>2012년 9월 신설 되었지만 다문화음식축제, 다문화도서관, 독립영화 상영, 에이블아트 전시 및 상영, 새터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문화다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다양한 문화공간과 사업, 전문운영인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민간문화주체 세우기, 지역과 주민/청년을 응원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축제, 교육, 문화공동체, 전시, 공연, 독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방위로 전개 하며 지역문화를 문화다양성으로 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p>			